

한국 1세대 서양화가 일대기 한눈에

전남도립미술관 '윤재우:색채의 미'

시기별 대표작 4개 섹션 전시
단순화된 그림 화려한 색 눈길

한국 1세대 서양화가인 고희원 윤재우 작가(1917-2005)의 작품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전남의 색채를 독창적으로 알린 작가 윤재우를 돌아보는 회고전 '윤재우:색채의 미'를 오는 9월 12일까지 개최한다.



윤재우 '6월의 정물'

이번 전시는 평생을 교육자이자 작가로 살아온 윤재우의 일대기와 작업세계를 조명한다. 단순화된 그림 속에 화려한 색채를 담은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그의 예술적 신념과 열정을 되돌아보기 위한 회고전이다.

강진 출신 윤재우 작가는 1944년 오사카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이후 광주사범학교와 조선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 한국전쟁 이후 서울로 이주, 1982년 봉천중 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평생을 교육자이자 예술가로 살았다. 특히 그는 교직생활과 화업을 병행하며 국선에 17번의 입선과 4번의 특선을 차지하고 타계 1년 전까지 12회의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작업에 대한 뚜렷한 자기 신념을 가졌다.

미술 이론서가 귀하던 1958년 '근대화화사: 유파와 작가와 작품'을 집필하는 등 미술이론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남다른 열의를 보였고, 미술교육자로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다.

이번 전시는 윤재우 작가의 시기별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4개의 섹션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섹션은 한국적 색채의 표현이 돋보인 작품들을 배치해 향토적 소재와 흙색, 푸른색 등 자연적인 색채의 사용이 두드러진 한국적인 상주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한 윤재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섹션은 '밤의 화가'라는 윤재우의 별칭답게 어둠 속에서 작업을 진행한 작품들로 구성했다. 윤재우는 퇴근 후 밤 시간을 활용해 꾸



윤재우 '홍도풍경'

준히 작업을 이어나갔다. 이 시기에 이뤄진 작품들은 자연의 외광이 차단된 어두운 분위기의 정물 시리즈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세 번째 섹션은 현장의 생동감을 담은 색채 작품으로 이뤄졌다. 그는 전국 각지를 여행하며 현장의 생동감을 담은 풍경화를 담았다.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대상을 단순화하고 원근을 배제하는 특징을 지니기 시작했고, 빛에 대

한 탐구를 바탕으로 밝고 맑은 원색을 사용한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했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은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시켜 본인의 색채를 해방시킨 작품들로 구성했다. 굵은 윤곽선에 의한 색면 분할, 화려한 색채와 조화를 이루는 장식적 요소가 더해져 단순 명쾌하면서 조화로운 구성의 회화 양식을 정립했다. /이나라 기자

ACC, 청소년 진로체험 공연기획·사운드아티스트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청소년 대상 여름방학 프로그램 'ACC TEEN 예비전문인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전당 콘텐츠와 연계해 전문적으로 진로를 체험하는 심화형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무대와 관객을 잇는 공연기획자가 돼 나만의 공연을 기획해보는 '공연기획자', 소리를 예술 작품으로 연출해 전달하는 음향 예술가를 꿈꾸며 작품을 만들어 보는 '사운드 아티스트' 등 2개 과정으로 구성했다.

'공연기획자' 과정은 오는 21~24일 ACC 문화교육동에서, '사운드 아티스트' 과정은 26일~29일 ACT 스튜디오 3에서 각각 운영한다.

'공연기획자' 과정에선 공연 기획자와 공연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 진로를 체험한다. 전문가와 함께 ACC 어린이극장을 방문해 무대 장치, 조명, 음향 등 여러 요소를 알아보고 공연 기획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민다. 공연을 관람하며 생각의 폭을 넓히는 과정도 제공한다.

'사운드 아티스트' 과정은 사운드 아티스트와 함께 활동 영역을 알아본 뒤 음향 예술 작품을 만들며 직군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음향 예술 작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박자를 만들며 실전 활용법을 습득한다.

'ACC TEEN 예비전문인교육'은 오는 17일 밤 11시까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최진화 기자

ACC재단 전시 '식물의 고통'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초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 전시 콘텐츠가 경기도 부천에서 열리는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됐다.

4일 ACC재단에 따르면 영화제 초청 작품은 2021 ACC 포스트 휴먼 앙상블에 소개된 전시 커미션 작품인 김태연 작가의 '식물의 고통'이다. 이 작품은 영화제의 XR부분 비온드 리얼리티 중 SF·자연과학·환경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정한 '비온드 사이언스(Beyond Science)'에 소개된다. 비온드 사이언스는 7일부터 17일까지 부천 한국문화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식물의 고통' (김태연+PPP Lab+VR CREW)은 식물도 감정이 있기에 인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함께 공존해야 되는 존재임을 이야기한다. VR기술로 제작된 이 작품은 관람객이 가상공간에서 깃털, 가위, 망치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식물에게 여러 자극을 시도해 보고 그에 따른 식물의 여러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다양한 삶 보여주는 '뜨거운 추앙'

광주독립영화관 특별 기획전
'니얼굴'·'모어' 등 6편 상영

광주독립영화관이 다양한 삶을 담은 한국영화로 코로나19와 무더위를 극복하는 특별기획전을 마련했다. '당신에게 보내는 뜨거운 추앙'을 주제로 한 이번 기획전은 '윤시내가 사라졌다'와 '오마주', '여판사', '경아의 딸', '니얼굴', '모어' 등 6편을 준비했다.

'윤시내가 사라졌다'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배우상(오민애)을 받으며 주목받은 작품이다. 실종된 전설적인 가수를 찾으러 떠나는 이미테이션 가수 순이(오민애)와 관중 유튜브버

정하(이주영)의 동상이몽 여정을 담았다. '오마주'는 신수원 감독의 작품으로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되고 있다. 사라진 필름을 찾아나서는 여성 감독(이정은)의 시간 여행으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시간을 선물한다. 영화 속에 삽입된 흥은원 감독의 '여판사'는 특별 편성돼 무료상영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딸과 엄마 경아의 용기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경아의 딸'은 2022 전주국제영화제 대상 수상 작품이다. 캐리커처를 그리는 정은혜 작가의 일상을 담은 '니얼굴'은 가족인 서동일 감독에 의해 다큐멘터리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경아의 딸' 김



영화 '니얼굴'

정은 감독과 '니얼굴' 서동일 감독, 정은혜 작가가 각각 9일과 10일 영화 상영후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독보적인 드래그 아티스트 '모어'의 성장담

을 담은 '모어'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몸짓으로 관객들에게 질문하는 다큐멘터리다. 이 일하 감독과 주인공 모어는 13일 극장을 방문한다. /최진화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폼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스크린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폼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스크린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릴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